

## 시간과 원근법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것들이 공간에 상관없이 흩어져 펄펄 날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 “Duineser Elegien” 중

정정화는 1986년부터 설치, 퍼포먼스, 비디오 영상, 시각적 효과에의 한 시(詩), 영화 등 여러 형태의 다각적 표현방법으로 작업해 왔다. 다양한 매체의 체계적 혼합을 통해서 일맥상통하는 내용, 즉 시공간-상황에 관한 새로운 인지 및 경험 가능성을 창조해 낸다.

이번 정정화의 「시간과 원근법」 전시는 지난 해 동안 그녀가 독일 함부르크에서 설치한 두개의 작업을 연합한 것이다. 1993년 함부르크예술대학에서 전시한 「시간과 원근법, 0각도」는 사진과 거울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것들을 공간적으로 정교하게 배치하는 것으로 구성되어있다.

작가는 공간의 뒤 벽면에 하나의 커다란 흑백사진을 걸었다. 관람자가 이 사진을 뒤로하고 열린 문을 통해서 계단이 있는 건너편의 건물을 보게 되면 이 사진의 이미지와 같은 광경을 만난다. 또한 사진의 일부는 거울로 되어 있다. 이 거울의 형태는 원근법에 의해서 측정된 것인데 즉, 반쯤 열린 문 위치에 서서 봤을 때 문의 형태가 거울에 꼭 맞게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각 관람자가 보는 위치에 따라 사진과 거울 사이에 상대적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어떠한 원근법이 맞는 것인지? 잘못된 원근법이 있는 것인지? 또는 시각의 모순이 실제 지각을 포함해서 공간의 새로운 모호함을 형성하는 것인지? 관람자들은 새로운 Architektur 건축문(門)에 빠져 들어가는 것인지?

1992년에 전시한 작업 「공간의 움직이는 표면들」은 두 개의 비디오카메라, 브라운관으로만 이루어진 여러 모니터들, 모니터에 설치 고정되어 서서히 돌아가도록 조립된 두 개의 투명한 아크릴제재의 육면체로 구성되어 있다. 육면체의 한 면은 투명사진으로 조립되었는데 이 사진은 내부로부터 전시공간의 창문 쪽을 향하는 시각을 보여준다. 육면체의 다른 한 면은 투명한 양면거울로 조립되었다. 공간에 배치된 비디오카메라들은 돌아가는 육면체를 녹화한다; 거울에 반사되는 실제 공간, 창문 쪽을 찍은 사진, 육면체의 투명한 면을 통해 보이는 광경, 거울에 보이는 다른 육면체의 반사, 그리고 두 개의 비디오카메라로 녹화된 영상을 재방영하는 모니터들의 반사이다. 관람자가 돌아가고 있는 육면체를 보든지 또는 모니터를 주시하든지, 관람자에게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 상황이 만들어졌는지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공간이 얽혀 짜여져 보인다.

이 현상이 사진이나 반사 또는 녹화에 의한 것인지? 반사나 재방영, 그리고 다시 반사된 것인지? 여기서 보여진 것이 실재(實在)의 직접적인 복사상인지? 끝없이 복사하는 과정에 의하여 도달된 실체(實體)의 복사상인지? 관람자들은 매체를 통한 영상과 그들이 접하는 실제 환경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여기 저기 바라볼 뿐인 것이다. 그리하여 관람자는 현실공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어느 정도 그 현실감을 상실하게 된다. 관람자가 절대적으로 참여하는 능동적인 입장의 성격 때문에 작가는 이러한 설치작업을 퍼포먼스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이번 서울 전시에서 시간적인 면을 강조함으로써 더욱 크게 나타난다. 그리고 작가는 전시장의 건축적 특징을 일단은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관람자는 전시장 내부를 들어서면서 바로 지나친 곳을 기억하게 된다. 관람자가 두 번째 계단을 통해 들어서는 전시장의 반대편 벽면에는 전시장에 들어오는 첫 번째

유리문의 사진(거리 쪽에서 찍은)이 걸려있고, 이 두 번째 통과하는 문과 계단이 거울에 비추이게 된다. 이 사진의 가운데 부분에 밖에서 들어오는 유리문의 모양이 거울로 대치되어 관람자가 전시장에 들어서는 순간 그가 바로 몇 초 전에 지나왔던 계단, 이제는 실제로 보이지 않는 계단과 문 속에서 지금 들어오는 문안의 반사를 보게 된다. 즉 관람자가 바로 떠났던 이 공간은 관람자 자신의 상에 의하여 낯설게 느껴지게 된다.

관람자가 전시장을 다시 계속해서 관람하는 동안 안쪽 계단 아래에서 찍은 첫 번째 유리문의 사진과 그의 투명사진, 투명거울을 통해 다시 그다지 확연치 않은 바로 전의 상황을 여러 가지 다양한 과정 속에서 기억하게 된다. 이러한 다양한 방법은 계속적으로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하여 실내에서 관람자의 움직임을 사진 안의 거울의 반사를 통해 보여주거나, 입구 문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관람자를 다시 함께 보여주어 공간과 시간의 변화를 더욱 강화하였다. 또한 영상과 복사된 영상 속에서 서로의 비슷함과 연관된 것들의 변형의 원리를 통해 복합적인 시 공간의 해체와 결합을 꾀하고 있다.

“시간과 원근법”의 작업에서는 비디오가 시간적 오차를 작동시키는 거울의 개념으로 사용된다. 이곳에서 거울은 나르시스적인 용도로 쓰이지 않는다. 정정화의 설치작업 속에서 거울은 프랑스 심리학자이며 이론가인 자크라캉(Jacques Lacan)이 그의 「반사단계」에서 설명했듯이, 더 이상 이 작가의 개인적 작품성의 단일체도 아니다. 정정화의 거울반사 작업들에서 자아는 오히려 자신으로부터 소외된다. 바로 우리가 몇 초 전에 인지했던 것이 곧 잊혀지게 된다. 우리는 이 작업장(作業場)속에서 우리가 움직임에 따라 바로 옆의 다른 관람자의 얼굴처럼 스스로에게서 더욱 멀어지고 낯설게 된다.

우리들은 이 설치작업 안에서 자신의 영상을 만날 때마다 자신의 공간적 연결을 애써 재구성해야 한다. 내 주위의 공간이 새삼 어떠한 것인가? 실재에서 보는 것인가, 아니면 매체를 통한 것인가, 실재로 내가 움직이는 것을 비추어주는 거울 속의 영상인가, 아니면 지나간 모멘트(Moment)의 복사인가?

이 작가는 서로 다른 곳에 존재하는 공간들을 나란히 배치하며, 우리가 이미 구분할 수 있는 일상적인 시간 경험과 선적인 시간 개념을 혼합시킨다. 현재를 과거와 미래사이의 비어있는 곳, 그래서 항상 사라져버리는 모멘트를 느끼게 하며 과거와 미래사이에 존재하는 무(無)를 감지하게 한다. 작가는 나는 나로되 또 우리가 결코 붙잡을 수 없는 계속해서 또 다른 나임을 경험하게 한다. 그리고 네 개의 벽으로 이루어져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공간에서 그 어느 쪽으로도 우리를 지시하지 못하게 한다.

정정화의 설치작업은 모든 확실한 것을 동요하게 한다. 그 작품들은 심연과 같은 것이며 이 속으로 우리들의 명목상의 확실성들이 빠져들게 된다. 이 작품들이야 말로 우리들이 동일한 자신들이 아니며 “우리가 안일하게 안주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과 공간 사이에서 마치 “공기처럼 교환하는”(릴케)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카린 솔츠 박사